

■ 지방선거 핫코너

“시험범위는 알려줘야 하지 않나”

이석형 민주당 경선방식 비판

이석형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 후보는 5일 “경선이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경선의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경선방식을 확정지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전남지사는 물론 기초단체장 경선 일정과 당원 선거인단 구성 비율, 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아 마치 두운 터널을 걷는 느낌이다”며 “세부사



항에 대한 결정이 지연돼 경선열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원 선거인단의 경우에도 당비를 납부해온 우대당원과 일반당원의 비율이 불명확하고 선거인단 규모도 베일에 싸여 있다”며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시험 범위는 알려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병완 “국제상품거래소 유치”

윤난실 “안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이병완 국민참여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5일 “국제상품거래소의 광주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나주 혁신도시에 한국전력이 이전하고, 전남에 여천화확단지·광양제철소 등 에너지와 철강 등 대량 수요업체가 밀집된 점, 전남이 쌀 주산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제상품거래소의 광주 유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5일 시장이 되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공약 8개를 정리해 발표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청에서 시민을 쫓아내는 일 ▲제왕적 광주시장으로 군림하는 것 ▲연말 ‘보도블록’ 교체 ▲돛구장 건설 ▲영산강 죽이기 사업 ▲‘MB이천기’를 부르며 중앙관력에 ‘아침’하는 것 등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동부권, 특화산업 육성”

김대식 “한중산단 추진돼야”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5일 “전남 동부권에 신소재, 정밀화학, 지능형 물류산업, 해양레저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날 순천 민주당 지역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남을 4대 권역별로 나눠 특화산업을 육성, 고르게 잘사는 전남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대식 한나라당 전남지사 경선 예비후보는 5일 “무안 기업도시 사업과 한중산단 개발은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무안군청을 방문, 서삼석 군수와 만난 자리에서 “무안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기업도시 사업과 한중산단 개발사업의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일봉 “남구청장 무소속 도전”

송광은 “북구청장 재선 도전”

황일봉 남구청장은 5일 “공천 쿠데타와 다투는 시민배심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무소속으로 남구청장 3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이날 “민주당이 시민배심원제로 남구 주민을 모독했고, 민주당의 근간조차 훼손하는 민주당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



송광은 광주 북구청장은 5일 “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낼 능력 있는 사람이 북구청장이 돼야 한다”며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송 청장은 광주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주민 중심의 행정과 세계적인 민주인권 도시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고품격의 문화 북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軍, 美에 폭약·해난 전문가 파견 요청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객관성 확보

한미공동 금속파편 분석 방안도 검토

군당국은 5일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 규명 작업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미국의 폭약 및 해난사고 분석 분야 등 전문가를 파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우리 군 독자적으로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만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미국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하다”면서 “오늘 정식으로 미측에 관련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미측 전문가는 해군 수색분석센터와 불자체계연구소 등의 폭약과 해상 무기, 해난사고 분석 전문가들”이라며 “전

문 분야와 인원은 앞으로 군사체널로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는 이상의 합참의장이 주관하고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황의돈 연합사 부사령관, 존 맥도날드 연합사 작전 참모부장, 김중현 합참차장, 황중선 합참 작전본부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

위급 협조회의에서 전문가 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합참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천안함 탐색과 구조작전 현황, 인양작전계획 및 협조 소요, 추가지원 소요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상의 의장은 침몰 원인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미측의 해난 사고원인 분석 전문팀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인양작전을 위해 미국의 인양작전 전문가와 첨단분석프로그램 지원, 상호 연락장교 운용 등도 요청할 것이라고 합참은 전했다.

또 군은 천안함의 침몰원인 규명에 단서가 될만한 금속파편을 한미가 공동으로 분석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오는 15일까지 인양한다는 계획에 따라 천안함의 함미와 함수 부분을 동시에 인양하는 5단계 인양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착수했다. 함미 쪽 인양은 88수중개발에서, 함수는 해양개발공사에서 각각 맡게 된다. /연합뉴스

軍 “생존자, 밤 9시15분~20분 사이 통화 확인”

군당국은 천안함의 사고 시간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 생존자 중 4~5명이 사고 당일 오후 9시15분~9시20분 사이에 가족들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5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생존자 58명에 대해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조사한 결과, 4~5명이 사고 당일(지난달 26일) 오후 9시15분에서 9시20분 사이에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그간 사고 시간을 두고 일각에

서 오후 9시15분을 주장하고 있고 군은 오후 9시22분으로 판단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면서 “오후 9시15분 이후 9시20분까지 천안함에서 휴대전화를 했다는 것은 군의 사고 시간 판단이 맞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간대에 승조원들이 가족 등과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것은 사고 직전까지 천안함이 비상사태에 돌입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의 다른 소식통은 “생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일부 생존자 중 오후 9시20분 이후에도 통화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은 사고 당일 지진파와 열상감시장비(TOD) 촬영시간 등을 종합, 사고시간을 오후 9시22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은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사고 당일 오후 9시19분30초부터 5초간 2함대사령부와 통신상태 확인(감명도 확인)을 위한 교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교신 내용은 천안함에서 “여기는 000201, 000200 나와라. 감도는?” 등 이라고 했고, 2함대는 “여기는 000200, 감도 좋다”는 등으로 5~6초간 짧게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합정에서 사용하는 통신망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감명도를 확인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토록 되어 있다”며 “감명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 통신망에 대한 감명도 확인을 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천안함과 2함대도 감명도 확인 교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본부는 6일째 그간 조사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 드림호’.

/연합뉴스

한국인 5명 탄 선박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

정부 이순신함 급파

정부가 5일 새벽 삼호드림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을 잡기 위해 청해부대 소속 구축함인 이순신함을 급파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판단에 따라 파

견을 결정했다”며 “관계부처끼리 협의했으며 안보관련 부처들도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순신함은 피랍 추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적이 포획한 유조선의 이동항로를 따라 추격작업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한국인 5명이 승선한

이 배는 인도양 항복판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 마셜군도 선적 삼호해운 소속의 ‘삼호 드림호’는 이라크에서 미국 무이지에나로 항해하던 도중 이날 오후 4시10분(한국시간) 인도양(북위 08° 21', 동경 65° 00')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랍 선박은 30만급 원유 운반선이며, 한국인 5명과 필리핀인 19명 등 총 24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5명의 안전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멕시코 7.2 강진

2명 사망 수백여명 부상

멕시코 북서부 태평양 쪽에 있는 바하 칼리포르니아주(州)에서 4일(이하 현지시간) 규모 7.2의 강진이 관측됐다고 미국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

멕시코 당국 등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현재까지 주도인 멕시코칼리에서 2명이 숨지고 수백여명이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또 100여명이 무너져내린 건물에 갇힌 상태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진앙은 주도인 멕시코칼리(인구 90만명)에서 남쪽으로 60km 떨어진 지점으로, 비교적 얕은 지하 10km 정도 깊이에서 발생해 최소 2천만명이 지진을 체감했을 것이라고 USGS의 지질학자 루시 존스가 전했다.

바하 칼리포르니아 주 관계자는 한 남성이 지진으로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목숨을 잃었으며, 다른 한 남성은 지진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 빠져 거리로 뛰쳐나갔다가 차에 치어 숨졌다고 주요 외신 등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수명(壽命)이란 고난(苦難) 사주(死註) 곧 비참 수 없으므로
이름=운명(命運) 즉 명(命) 개명하여
운명(運命) 인생을 운진하는 것(運進)을 개척하시라

1. 사주에 따른 운명(運命)과 명(命)을 개명하여 비참 수 없으므로
2. 사주에 따른 운명(運命)과 명(命)을 개명하여 비참 수 없으므로
3. 사주에 따른 운명(運命)과 명(命)을 개명하여 비참 수 없으므로
4. 사주에 따른 운명(運命)과 명(命)을 개명하여 비참 수 없으므로

社団法人 星谷傳統文化研究會

0621-227-2356, 010-7671-5623

주식회사 지티

각 시·군 대리점 모집

062-371-7005

011-601-7701